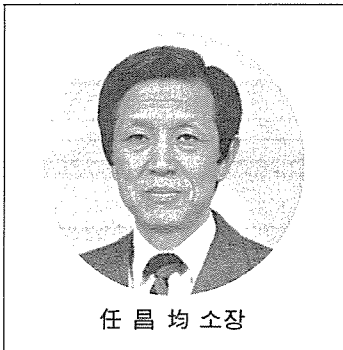


## 保寧 제약中央연구소

# “획기적 新藥개발에 全力 最新 GMP기준확립 지원”



任昌均 소장

국내 제약기업의 선두그룹에 위치하여 내실있는 사세확장과 매출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保寧 제약(주)의 중앙연구소(소장 任昌均)가 1982년 2월 출범할 당시만 해도 골지의 몇개 제약회사만이 연구개발의 핵심 조직으로서 독립된 연구소를 갖고 있을 정도였다.

保寧 제약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되고 매출액도 더 많은 회

학화에 괄목할 성과를 올리면서 세계적인 제약신기술의 흡수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즉 1977년에 생약제제용 초현대식 스프레이 공법시설을 준공한 바 있으며, 다음해인 1978년에는 암피실린, 아목시실린등 항생제 합성공장을 준공한 것이 그것이다.

保寧 제약의 현재 생산품은 기본의약품을 비롯하여 원료의

요구되는 오늘날의 실정에 부응하여 선진제약업체로의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전 연구역량을 쏟고 있다.

이 연구소의 연구조직체제는 제제개발연구실을 비롯하여 미생물연구실, 합성연구실, 분석연구실, 생약연구실등 5개 연구실에 45명의 연구원이 제제학적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은 물론 원료의 합성기술, 품질관리기술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영역중에서도 아직 국내에서는 미개척분야인 생약의 유효성분을 최신의 과학기술 기법으로 분석, 생약의 과학화에 앞장서오고 있는 생약연구실의 업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듯하다.

연구진들은 신제품개발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먼저 착실한 자체기술개발과 축적을 바탕으로 신약을 탄생시키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진기술의 동향파악은 물론 관련분야 정보수집, 관리등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같은 비중을 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연구소는 82년 설립후

### 國內 제약기업중 3 번째로 설립

### 선진제약업체 도약기반 마련

사들이 아직 연구소를 차릴 체비를 못하고 있을 때여서 保寧 중앙연구소의 설립은 제약계에서조차 경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꾸준한 연구투자와 기술축적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것만이 제약기업의 살 길』이란 창업자의 평소 신념을 알고보면 이해가 간다.

63년에 창립된 保寧 제약은 지난 10여년전까지 생약의 과

약품, 인삼제품, 특수화장품, 의약부외품과 가정위생용품등 70여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해외기술 도입과 함께 중앙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保寧 중앙연구소는 이러한 사세확장에 발맞춰 주요 의약품 원료의 자체개발, 제제학적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미래의 제약기술산업에 대비, 고도의 제제학적 기술이

安養공장의 일부를 사용해오다 지난 84년 9월 착공하여 만 11개월만에 자체 연구동을 준공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당시 국내 제약기업으로서는 3번째의 독립연구소를 출범시켰는데 외형적인 규모를 보면 최신 GMP(우수의약품생산) 기준에 맞게 설계된 4층건물에 연건평 1천1백90평, 총공사비가 22억 2천



인 겔포스의 수출에 기여한 것

목표아래 현재 생리활성물질의 분자세포 검색기술개발을 위한 기초단계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소는 고도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료, 부재료에서 완제품 생산까지의 제반공정 하나하나에 완벽한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의약품이 인류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임을 실증해 주고 있다.

계열기업으로 1979년에 保寧粧業(주)을 설립하여 의약부의 품등 시대적인 문화생활의 요구에도 부응해오고 있는 保寧제약은 1966년 일본용각산(주)과 최초의 기술계휴를 맺은 이후 미국의 브리스틀 마이어즈, 프랑스의 이노테라 및 비오테락스, 스페인의 알미랄, 스위스의 신택스사등 세계 굴지의 선도제약기업들의 기술을 꾸준히 도입해오고 있음으로써 중앙연구소의 연구개발에도 활력소 구실을 하고 있다.

멕시코 등에 항생제원료합성 노하우 支援

중앙통제 공기조화시스템 갖춰

여만원이나 투입되었다.

특히 제약회사의 중앙연구소답게 이 신축연구소 건물은 중앙통제공기조화시스템에다 클라스 1,000의 무균공기공급시설을 갖춘 외에 1일 40톤의 폐수처리시설과 특수화학약품 처리를 위한 특수바닥, 비상샤워장치, 자동세척동물사육시설등 현대과학기술의 우수한 성과를 시설면에 최대한 반영한 인상을 준다.

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가스토타그라피등 약 2백여종의 최신 정밀연구기자재를 확보하여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가 하면 곧 컴퓨터에 의한 다목적제제시작기계인 NMR 원소분석기등 첨단 연구기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이 연구소의 그간의 주요 개발실적 가운데서도 83년 멕시코의 헬신시社 및 동남아에 항생제 원료합성 노하우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완제의약품

등은 타사의 부러움을 사고있다.

앞으로 이 연구소는 현재보다 박사급등 고급 연구인력을 대폭 늘이기 위해 첨단기술분야의 해외연수를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공학분야 연구개발에도 실질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천년대의 신약개발 주역을 차지 하겠다는

保寧제약 中央연구소 전경

